

칼럼



김윤호 주필, 행정학박사,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미나리 같은 74세 윤여정의 인간승리

4월 25일(현지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유니언 스테이션에서 열린 제93회 아카데미(Oscars) 시상식에서 영화 '미나리'로 윤여정(尹汝貞, 74세)이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을 받은 건 한국 영화 102년 역사상 처음이다. 아시아 배우로는 두 번째로, 1958년 제30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영화 '사요나라'(1957)로 여우조연상을 받은 일본 우메키 미요시 이후 63년 만이다.

이날 시상식의 또 다른 주인공은 영화 '노매드랜드'였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클로이 자오), 여우주연상(프랜시스 맥도먼드)까지 3관왕에 올랐다. 중국계 미국인 클로이 자오는 여성으로선 2010년 '허트 로커'의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 이후 역대 두 번째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았다. 아시아 여성 감독으로는 최초로 작년 2월 10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parasite)이 한국 영화로는 최초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외국어영화상을 수상했다.

윤여정의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수상소감은 수상소감상, 아카데미의 챔피언(영국 가디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경쟁자였던 수상 후보자들을 칭찬하고 최초 출연영화 '화녀(火女)'의 고(故) 김기영 감독에게 감사하면서, 자기 이름을 잘못 부르는 서양인들을 오늘 만은 용서해 주겠다는 유머까지 유창한 영어로 말했다. 특히 나가서 일하라고 잔소리한 두 아들 덕분에 이 결과를 얻었다고 두 아들에게 감사했다.

이러한 말과 여유는 윤여정의 힘든 삶에서 이겨내고 체득한 내공(內功)이다. 서울 종로구 장신초,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에 알바를 하다가 텔러가 되기 위해 중퇴했다. 1966년 동양방송(TBC) 공채 3기 텔러트로 시작하여 1971년 '화녀'로 데뷔하여 90여 편의 드라마, 33편의 영화에 출연했다.

1974년 가수 조영남과 결혼하여 미국 플로리다의 트리니티 신학대학교로 유학길에 오른 조영남을 따라 플로리다에서 주부로서 13년을 살았다. 조영남은 돈을 한 푼도 안 벌고 바람기만 다분해서 윤여정은 플로리다의 식료품점(Publix)에서 계산원으로 일하면서 최저 임금 2.75달러를 받아 두 아들을 부양했다. 언더 장벽과 한국에서의 낙인(烙印)의 무게 때문에 계산원으로 일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었다. 1987년 윤여정은 이혼하고 귀국하여 두 아들과 자신을 지키려고 닳지는 대로 생계형 연기를 했다. 삶은 척박하고 떨어졌던 때가 더 많았다고 한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연기했다.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한 거였어요. 요즘도 그런 생각엔 변함이 없어. 배우는 목숨 걸고 안 하면 안 돼. 훌륭한 남편 두고 천천히 놀면서, 그래 이 역할은 내가 해 주지, 그러면 안 된다'고 한 신(scene) 한 신(episode) 없는 연기는 죽어 있는 거라고.' 윤여정

은 시상식 직후 열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사람을 인종으로 분류하거나 나누는 것은 좋지 않다. 무지개처럼 모든 색을 합쳐서 더 예쁘게 만들어야 한다. 남성고 여성으로 구분하고, 백인·흑인·황인종으로 나누고 싶지 않다. 우리는 따뜻하고 같은 마음을 지닌 평등한 사람이다. 서로를 이해하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수상을 개인 또는 국가적 영예에만 가두지 않고 범인류적인 메시지로 확장했다.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본 윤여정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세상에 평(bang!)하고 일어나는 일은 없다.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한 결과다.' '모두 1등, 최고(最高)만 고집하지 말고 다같이 '최중(最中)'이 되면 안되나' '세상은 서러움 자체이고 인생은 불공정, 불공평이야. 그 서러움은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 같아. 나는 내가 극복해야 하는 것 같아. 내 인생만 아쉬운 것 같지만, 다 아프고 다 아쉬워. 난 웃고 살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헛소리를 좋아해요.'

나의 어린 시절, 농촌 마을 가운데 방죽 옆에 미나리밭(미나리밭)이 있었다. 초여름, 파랗게 다 자란 후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베고 씻어서 나누어 먹었다. 그 미나리가 예술의 웃을 입고 세계적인 명물이 되었다. 참으로 기쁘고 놀라운 일이다.

기고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생명을 살리는 신고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뜨거운 열기와 유독성 연기가 발생하게 되고, 이와 함께 정전이 동반된다면 출구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상구는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을만큼 중요한 생명의 문이다.

다중이용업소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피난·방화시설의 폐쇄(잠금)와 훼손, 비상구 주변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등으로 다수의 고귀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문이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해야 한다.

최근 전 연령층에 걸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고, SNS가 활성화 되며 따라서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런 흐름에 발맞춰 순천소방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시설 이상 7개 대상이 해당된다. 거주지 제한없이 누구나 방문, 우편, 팩스, 순천소방서 홈페이지 등 형식 제한없이 신고 가능하다.

신고대상 행위는 ◆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일체 ◆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하

여 상시 개방된 상태로 사용하는 행위 ◆ 피난시설(방화셔터 등)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하는 행위이다. 최초 신고시에는 5만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은누리상품권), 같은 사람이 2회 이상 신고 시 해당 5만원에 상당하는 포상물품이 지급되며,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월 30만원, 연 300만원이다.

소방시설은 수도·전기·가스시설과 같이 필수 시설임을 인지하여 기능상이 발생할 시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관계자가 비용발생이 부담되어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로 유지한다면 건물관계인 뿐만 아니라 건물을 방문하는 불특정다수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불법행위는 반드시 교정되어야 한다.

순천·구례 주민여러분의 사적인 정(情)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잠시 접어두시고, 생애·자연도시 순천시 구례군을 위해 소방시설 불법행위 통합감시 체계 구축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생명을 살리는 신고를 바라며.' 황학연(순천소방서구례119안전센터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보행자를 꼭 살피자

이른 아침 출근 길, 횡단보도 신호 녹색 점등이 켜지고 '좌우를 살피고 건너세요'라는 횡단보도 내 설치된 안내음성 소리에 따라 좌우를 살피고 보행하려던 찰나 급속도로 진행하던 차량에 충격할 뻔한 경험이 있다.

이와 비슷한 상황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으며, 이는 우리 주변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현실이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시, 일단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 차량 내에서는 우회전 시, 명확하게 시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운전 습관을 키우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임은 물론 자신까지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만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정상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의거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여 보험에 가입했다더라도 형사처분을 받는 상황에 놓일 수 있기에 보다 주의 의무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운전자이면서 보행자가 될 수 있다. 그러기에 올바른 운전 습관을 키워나가는 것은 보행자를 보호하면서, 나 자신 또한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스스로의 예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글을 통해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횡단보도 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살펴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로부터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란다.

김정배/순천경찰서남문파출소경장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